

비로소 핵심과제로 부각한 전자출판

전자출판협회 창립으로 업계간 연대 적극 모색

올해는 '전자출판 원년'으로 기록될 만큼 그 어느해보다도 전자출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컴퓨터인구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곧 다가올 미래 정보사회에서 출판이 차지할 정보산업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동안 출판계 일부에서만 논의돼오던 전자출판이 이제 출판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중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출판협회 출범 계기로 활성화 조짐

불과 몇년전만 해도 전자출판은 일부 출판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제품으로 인식돼왔으나 예상외로 빠르게 보급·정착되고 시장을 넓혀나감으로써 국내 출판계도 뒤늦게 전자출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나 기술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출판계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간의 연대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본격적인 전자출판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일로 우선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허창성)의 창립을 꼽을 수 있다. 88년과 90년에 각각 창립된 한국전자출판연구회(회장 이기성)와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회장 김광희)의 뒤를 이어 창립된 한국전자출판협회는 기존의 전자출판 관련단체가 출판계 자체의 연구모임이라는 성격이 짙었던 데 비해, 출판계는 물론 30여개사에 이르는 언론·인쇄·서점·전자기기업체·소프트웨어연구자·유통회사 등 전자출판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가 모여 결성됐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출판의 실용화단계에 성큼 다가섰음을 보여준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국내 전자출판 시장도 몇몇 대형출판사와 전자업체가 주축이 돼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출판계와 관련업체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동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5일에는 삼성전자·금성사·SKC·웅진미디어·양재시스템 등 차세대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는 CD-I(대화형 컴팩트디스크) 관련업체를 주축으로 한 한국 CD-I협회(회장 성기철)가 발족돼 관련제품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키로 함으로써 국내 전자출판계는 더욱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에서도 작년부터 전자출판을 향후 새로운 출판문화로 인식, 전자출판을 운영 관리하는 다목적 전자서점을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컴퓨터인구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곧 다가올 미래 정보사회에서 출판이 차지할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동안 출판계 일부에서만 논의해오던 전자출판이 이제 출판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중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출판계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간의 긴밀한 연대가 이뤄짐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있어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실현단계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사 및 출판사·서적상 등 출판계, 문화부·과학기술처 등 정부관련부처 등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자서점 운영의 타당성과 기본방향 등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출판계나 관련업체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전자출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비록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전자출판에 대한 인식이 출판계 안팎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래의 출판양식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른바 '미래의 책'에 대한 논의와 전망을 제시하는 작업도 활발히 전개됐다. 본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사흘간 '책의 미래와 미래의 책'을 주제로 창간 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고, 관련단체나 학회에서는 전자출판의 현황과 개발방향에 대한 적잖은 세미나와 모임을 가졌다.

이와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단계 국내 전자출판 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임이 분명하다. 구체적인 상품개발 이전인 전자출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시장개방에 대비한 업계간 연대 필요해

전자출판의 정의나 개념은 아직까지도 다양하나, 미국에서 흔히 '탁상출판'이라 불리는 DTP시스템이 개발되고 구체적인 전자출판물인 CD-ROM이 등장하기 시작한 8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전자출판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으로 전자출판을 해



출판계와 관련업계간의 긴밀한 유대를 예고하는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출범.

석하면, 원고의 집필과 교정·편집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전산사식기가 이용되는 단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전자출판 선진국에서는 '종이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이 단계에서 나아가 출판물 자체의 전자화, 즉 종이 매개로 한 책이 아니라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책' 생산이 활발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정보통신, 방송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시스템 운영단계에까지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1단계라 할 수 있는 출판물 제작공정의 전산화단계에 머물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생산의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자기디스크, 전자카드, 전자수첩 등 현재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 있는 전자출판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디스크의 일종인 CD-ROM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수준이나 시장형성이 아직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제품이 아닌 합작형식으로 현재 3종이 나와 있을 뿐이다. 지난 91년 큐닉스가 선보인 「성경라이브러리」와 영어회화 교육용으로 삼성전자가 내놓은 「다이내믹 잉글리쉬」와 「액티브 잉글리쉬」가 그것. 이 밖에도 CD-ROM의 형태는 아니지만 학습용이나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품종이 개발 시판중에 있다. 웅진, 동아, 대교, 중앙교육진흥연구원, 계몽사 등 참고서출판사들이나 KIST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가연구기관 등은 데이콤의 천리안, 한국통신의 하이텔, 포스데이터의 포스서브 등 PC통신을 이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학습내용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2, 3년전부터 시판해

오고 있다. 전자사전으로는 지난 5월 불교방송이 역대 불교인 1천3백여명을 수록한 「한국불교인명사전」을 내놓아 본격적인 의미의 국내 첫 전자출판물을 기록했다.

아직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대형출판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곧 시판할 예정인 CD-ROM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내용의 전자출판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자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비교적 손쉬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출판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국내 전자출판계가 출판사보다는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돼오면서 전자출판의 주체가 전도됐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CD-ROM 분야는 출판사들이 장악하고 있음에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출판계가 축적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첨단미디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단일한 태도로 있다가 전자책의 분야를 전자업체에 넘겨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자업체와 출판사간의 헤게모니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국내 전자출판시장의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출판시장 개방 이후 그 어느 부문보다 전자출판계가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관련업계간의 연대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의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출범이 갖는 의미도 이러한 국내 전자출판시장의 본격적인 확장과 출판시장개방에 대한 대비책 중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출판계의 인식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정소연 기자